

#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매개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신혜숙\*\* · 김준엽\*\*\* · 민병철\*\*\*\* · 오유미\*\*\*\*\*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초등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교육관-방과후학교참여-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대한 잠재변인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학업성취도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혼입 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모가 학업을 우선하는 교육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는 교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예체능 및 비교과 동아리 등의 비교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경향은 낮았다. 둘째, 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셋째,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은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학교행복에 정적 효과를 미쳤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학업 외에도 여가나 취미, 사회적 관계 등의 비교과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차원에서 초등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내의 비교과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 교과 방과후학교, 비교과 방과후학교, 학교행복, 공동체의식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조교수

\*\*\* 홍익대학교 부교수, 교신저자, junyeop@gmail.com

\*\*\*\* 서울대학교 석사졸업

\*\*\*\*\* 홍익대학교 석사과정

## I. 서론

한국 교육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성장해 왔다. 현재, 고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양적으로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둘 정도로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학문을 숭상하는 전통적인 교육관과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있다고 할 수 있다(Kim & Park, 2000).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서열이 높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졸업 이후의 사회적 지위 결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되면서(김상봉, 2004),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윤선진, 2010).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경쟁,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높였던 측면도 있으나, 지나친 경쟁위주의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비인지적 영역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 2012; 박현선, 1998).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며,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함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김창환, 강은경, 노지윤, 박레아, 황혜정, 2012;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UNICEF, 2006).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성취압력이나 입시부담감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경 외, 2014; 동윤정 외, 2012).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임희진, 김현신, 2012).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폭넓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량은 아동들이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길러져야 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학교행복이 교육계의 주요 화두로 제기되어, 학생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예체능교육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방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또한 공동체의식 역시 길러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연구 결과 제시된 미래역량 중에서(류성창, 장혜승, 서예원, 강태훈, 정제영, 2012), 협업능력과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등이 공동체의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 관심도가 낮았던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가정 요인으로 학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성취에 가정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택수, 2010; 남궁지영, 최보미, 2014; 최혜영, 2001). 특히 초등학교급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부모의 교육관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교육활동에 참여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 발달에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학업성취를 중시하는지, 또는 자기계발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활동의 성격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참여하는 교육활동의 성격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 등의 비인지적 성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활동이 특히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지적·정의적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공통의 교육내용을 교육하는 정규교육과정에 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 역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초

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영향에 보다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신혜숙, 김민조, 2012; 이자형, 2011), 초등방과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의 유형이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유형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방과후학교 참여는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과 학생들의 교육적 활동, 그리고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김양분 외, 2013),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교육활동으로 방과후학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분석모형에 학생들의 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선택 및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성취도의 혼입효과를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에 따라 자녀가 학교에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의 유형(교과 혹은 비교과)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생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의 유형에 따라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은 방과후학교 참여와는 독립적으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의 개념과 의미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부모이며,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을 처음 경험하게 된다. 특히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자녀가 경험하는 교육적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경근, 2000; 홍영주, 이지연, 2012).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부모

의 교육 기대 수준 및 학습활동 지원, 양육태도 등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2000).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분석한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가 가지는 사회적 배경이나 사교육 등의 학업지원활동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은 편이다. 즉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 문화자본, 한부모가정 여부 등의 가정환경배경, 사교육이나 부모의 학업지원 등의 학업 관련 지원 활동,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김경근, 2000; 김신경 외, 2014; 신현균, 2002; 홍영주, 이지연, 2012). 이 중에서 부모학력 등의 가정환경배경이나 사교육 등은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계되어 분석된 연구가 많다. 반면 부모 자녀 관계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주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의 심리적 구인과 연관되어 연구된 측면이 있다(김옥주 2012; 박홍선, 박경란,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관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교육관이란 '이상적인 교육에 대한 포괄적 견해. 교육을 통하여 실현코자 하는 목적, 달성코자 하는 목표, 이에 따라 요구되는 수단과 방법과 조건을 포괄함과 아울러 교육 전반을 지배하는 가치체제'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즉 교육관은 개인들이 교육당사자로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겪어온 경험 속에서 형성되고 누적적으로 통합된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학업우선 교육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특히 자녀에 대한 학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업에서의 성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부모의 교육관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주로 학업우선교육관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교육관은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다양한 맥락으로 나타난다. 우선 영·유아 단계에서, 부모의 교육관은 부모중심적 현실 교육관과 자녀중심적 이상 교육관으로 구별하여 설명된다(박홍선, 박경란, 1998; 오혜진, 주경란, 2004; 이정희, 1986). 부모중심적 교육관이란 지식중심의 학업을 강조하면서 자녀에게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녀중심적 교육관은 자녀에게 민주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일컫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양육 초기 이상적으로 자녀중심적 교육관을 가지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의 흥미와 발달단계, 교육적 성과, 주변인들의 지적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교육관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김옥주, 2012). 즉,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학업우선교육관’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업우선교육관이 경쟁적인 교육지원활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다른 학부모와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다른 학부모의 교육지원활동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학업우선교육관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부모의 교육적 지원의 형태로 작용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김경근, 2000; 신혜숙, 2015), 어떤 경우 학생들에게 학업우선교육관을 가진 부모의 간섭이 학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이소희, 노경선, 김창기, 고복자, 2000; 신현균, 2002).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대하여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의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은 학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의 현황과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학부모의 교육적 지원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고,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가정의 영향은 폭넓게 분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학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 2.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과 방과후학교 참여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에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특히 정규수업이 끝나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의 참여 여부는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청소년의 비교과활동 참여가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다(Fletcher, Simpson

& Thomas, 2000). 이때 수용적 양육태도는 학업위주의 교육관이 반영되지 않은 태도로써 자녀의 요구와 관심에 초점을 두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업우선의 교육관이 약할수록 비교과 활동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교과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태, 2001; 김현주, 정영란, 2008; 허인숙, 이정현, 2004). 예를 들어 교내외 단체활동도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학교활동 클럽이나 학생회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김원태, 2001; 허인숙, 이정현, 2004), 이러한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부모교육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정규 수업 이후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적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은 사교육과 방과후학교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활동인 방과후학교 참여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사교육과는 달리,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교육적 노력에 따라 내실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관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방과후학교 참여가 다시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서, 주로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후에 시행된다. 방과후학교는 5·31교육개혁안에 ‘방과후교육활동’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2006년부터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이후 사교육 감소 및 공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왔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영향에 보다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신혜숙, 김민조, 2012; 이지형, 2011), 초등방과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학교급이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과후학교의 교과나 성격이 학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저학년 시기에는 자녀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예체능 위주로 방과후학교에 다양하게 참여시키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예체능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는 비율은 낮아진다. 즉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영수 교과를 가르치는 방과후학교 운영강좌의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32.0%인데 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65.2%와 84.5%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부, 2014).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전연구에서는 주로 교과 관련 강좌에 초점을 두고, 교과 방과후 참여가 학업성취도 증진이나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의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고교 단계와 달리 초등학교 단계에서 초등학생들은 방과후에 교과활동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방과후학교 보도자료에 나타나듯이 전체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4.8%와 15.5%인데 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68.0%로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2~3배에 이른다. 즉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다른 학교급과 달리 교과 중심이 아닌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을 기준으로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초등학생들의 인지적·비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학교 환경을 탐색한 신혜숙(2015)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서 학교예체능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학생수준의 비인지적 발달과 학교수준의 예체능 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준에서의 비교과활동 참여가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3개년도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경험을 분석한 김위정(2012)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활동은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로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봉사활동은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학교생활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참여가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적 성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역량들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나 행복도는 낮은 편이다(김창환 외, 2012;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2013; UNICEF, 2006). 특히 최근 발표된 '2012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부터 4년 연속 OECD 23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박종일 외, 2010; 염유식, 김영미, 이진아, 2013).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나 시민의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김위정, 2012; 동윤정 외, 2012). 이러한 경향 역시 학업위주의 학교생활과 학부모 지원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취압력과 학업 부담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동윤정 외, 2012).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만의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해마다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전담교사를 배치해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부, 2014.2.13.).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인지적 능력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경쟁 위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학력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걱정 때문에 경쟁적으로 학업 위주의 교육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다. 경쟁 위주의 교육문화가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에는 긍정적일지는 모르나, 비인지적 성취에는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교육현장에서도 타인과의

협력보다는 경쟁이 강조되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과연 한국교육이 창조경제사회 속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육열로 일컬어지는 학업 중심의 부모의 지원의 영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력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윤정 외, 2012). 부모의 과도한 학업기대는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소 발표되고 있다(김위정, 2012; 지은림, 도승이, 이운선, 2013; 최혜영, 2001). 예를 들어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가족관계는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매개로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위정, 2012).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다른 학교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처음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그에 따른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교육관이나 그에 따른 교육적 활동참여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활동 참여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이 발달한다고 가정하고, 이들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축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1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은 전국 242개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7,286명을

대상으로 2013년 패널을 구축하여 종단적으로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2013년 실시된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부모나 보호자 중 1인) 및 교사, 학교여건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경험, 가정배경 및 양육환경, 학교 및 교사의 특성과 학업성취도를 조사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1)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

학업우선 부모교육관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다른 활동에 비해 학과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부모의 인식을 묻는 5개 문항의 값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우선과 대비되는 활동은 ‘취미활동’,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것’, ‘집 밖에서 노는 것’, ‘행복한 것’, ‘적성과 흥미를 찾는 것’ 등이다. 따라서 부모의 학업우선 교육관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사회적 관계 구축이나 적성과 흥미의 계발과 같은 비학업적 활동에 비해 학과공부를 우선으로 두는 정도를 측정한다 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이들 문항의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었다. 단일요인의 고유치는 2.95이며, 전체 분산의 59.0%를 설명하였고,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2였다. 해당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계발 활동보다 학업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 기초능력검사 원점수를 지표변수로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단일차원성이 확인되었다. 단일요인의 고유치는 2.16이며, 전체 분산의 71.9%를 설명하였고, 신뢰도는 .80이었다.

### 3) 학교행복

1차년도 학생설문 중 학교행복을 묻는 5문항으로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의 내용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공부를 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다’, ‘수업시간에 발표나 호명되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가는 것을 좋아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한다’ 등으로, 원문항은 학업자아개념에 관한 것이나 김양분 등 (2014)의 연

구에서 이를 ‘학교생활행복’으로 한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교행복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수업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우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심리적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1개의 공통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의 고유치는 3.40으로 전체분산의 68.0%를 설명하였다. 신뢰도(Cronbach  $\alpha$ )는 0.88이었다.

#### 4) 공동체의식

1차년도 학생설문의 공동체의식 측정문항은 참여의식 2문항과 배려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참여보다는 행동적 요소의 성격이 강한 배려영역의 4문항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려정신을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인,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려는 태도로 요약된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유치는 2.58, 분산 설명량은 64.55%, 신뢰도는 .82였다.

#### 5) 방과후학교 참여: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

방과후학교 참여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방과후 교과활동은 학부모 설문지의 국어, 수학, 영어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문항을 합산해 참여과목수를 구하였고, 방과후 비교과활동은 예체능 방과후학교 참여여부 및 동아리활동 중 교과학습 동아리를 제외한 음악, 미술, 봉사 등 동아리 활동수를 합산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  
분석변수의 기술통계량

요인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도
교육관	교육관1	7,199	2.88	.92	1	5	.82
	교육관2	7,184	2.49	.82	1	5	
	교육관3	7,173	2.46	.83	1	5	
	교육관4	7,177	2.45	.98	1	5	
	교육관5	7,177	2.46	.92	1	5	
성취도	국어성취도	7,204	71.46	16.23	8	100	.80
	영어성취도	7,199	77.83	21.11	4	100	
	수학성취도	7,196	73.20	19.79	0	100	
교육활동 참여	방과후교과활동	7,286	.40	.80	0	3	
	방과후비교과활동	7,286	1.15	.98	0	8	
학교 행복	학교행복1	7,279	3.99	.91	1	5	.88
	학교행복2	7,274	3.80	.89	1	5	
	학교행복3	7,270	3.51	1.12	1	5	
	학교행복4	7,264	3.90	1.00	1	5	
	학교행복5	7,251	3.99	.92	1	5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식1	7,254	3.70	.84	1	5	.82
	공동체의식2	7,252	4.01	.91	1	5	
	공동체의식3	7,231	3.85	.85	1	5	
	공동체의식4	7,216	3.58	.91	1	5	

## 2. 분석모형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다. 분석을 위한 개념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과정에서 학업성취도를 모든 내생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부모의 교육관 및 교육활동 참여의 효과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혼입효과(confounding effect)를 통제하고자 하였다<sup>1)</sup>. 학업성취도가 방과후학교 수강과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인숙, 변종임, 조순옥, 2010; 신혜숙, 김민조, 2012)에 근거해 볼 때, 학업우

1)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SES)도 분석과정에 혼입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시켰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고 해당변수의 투입여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적으며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최종 분석모형에서는 제외하였다.

선 교육관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불균등한 분포는 학업우선 교육관이 방과후학교 참여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서 공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신혜숙, 2015)에 근거해 볼 때,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방과후학교가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에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업성취도 공변인의 영향을 통제한 인과매개모형을 구성함으로써 학업우선교육관이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보다 인과적으로 해석 가능하다(하여진, 박현정, 2015; Imai, Keele & Tingley, 2010). 또한 본 모형에서는 각 구성개념에 대한 측정오차로 인한 회귀계수의 축소(attenuation)를 교정하기 위해 모든 구성개념들에 대해 지표변수를 활용하여 잠재변수 수준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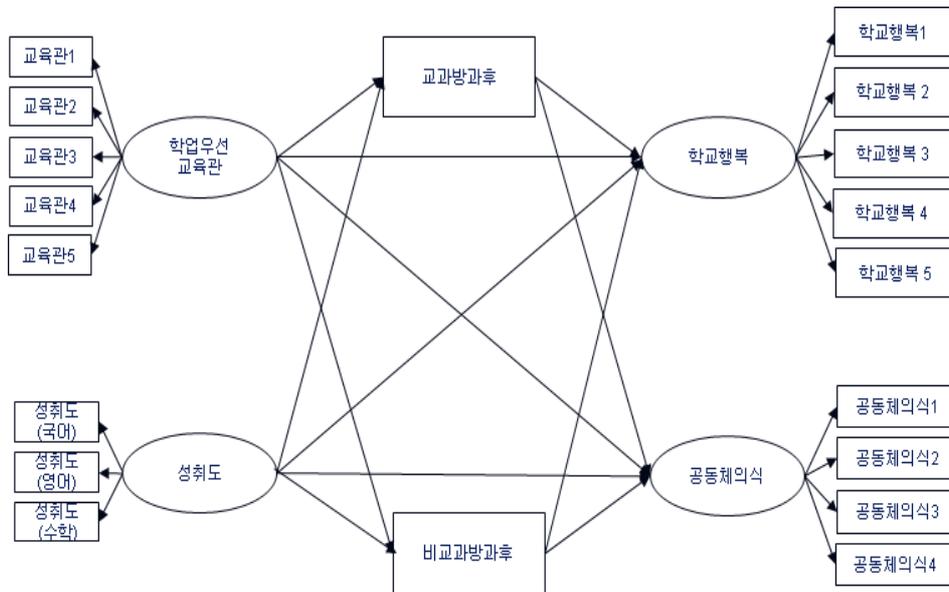


그림 1. 분석모형

구체적으로 연구모형에서는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교과방과후 및 비교과 방과후 학교 참여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가 자녀의 학교

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관이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와 별개로 비인지적 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이 직접효과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이외의 요소를 경유한 부모의 교육관이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잔여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직접효과는 교육관이 양육환경 및 양육태도와 같은 풍토변수를 통해 비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잔여효과를 모두 직접효과에 포함시켰다. 모형의 모든 내생변수에 대해 학업성취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학업성취도의 혼입효과를 통제하였다. 분석을 위해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결측치를 고려하여 완전정보 최대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측정모형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5개 구성개념의 측정구조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4개 구성개념의 지표변수는 모두 적절한 수준의 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1854.014$  ( $df=113$ ,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원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사례수가 7,00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적 적합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CFI=.966, TLI=.959, RMSEA=.046등으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간 상관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로 선정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의 상관은 모두 .644로 비교적 높은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은 학교행복 (.062) 및 공동체의식(.008)과 직접적인 상관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된 학업성취의 경우 교육관과 거의 상관이 없었으며 ( $r=.066$ ), 종속변수와는 .364(학교행복), .166(공동체의식) 등

으로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분석에 있어 성취도를 통제해 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부모학력 및 가계소득을 합성하여 산출한 SES의 경우 최종모형에서 어떤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취도만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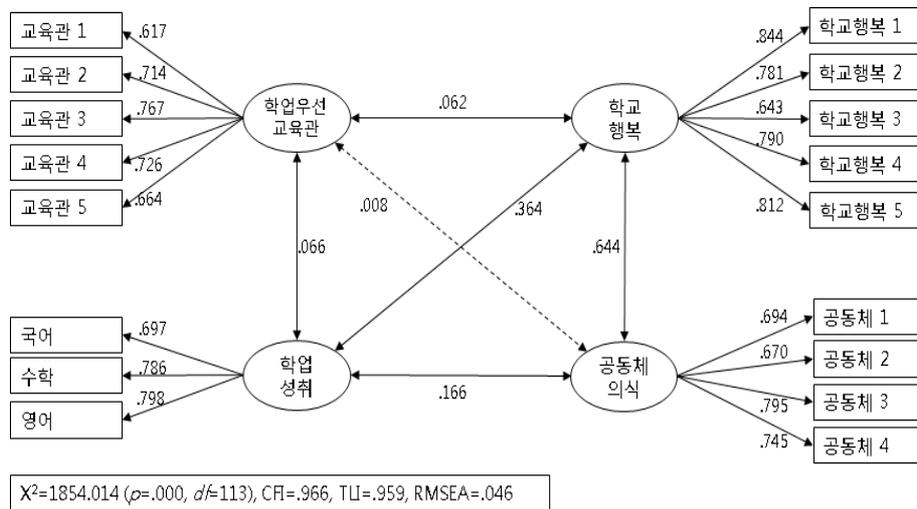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분석결과

## 2.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과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의 관계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를 매개로 하여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그림에서 실선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구조계수를,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한다. 도식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표변수와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부하량은 그림에 제시하지 않았다. 요인계수와 구조계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2025.278$  ( $df=140$ ,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부합한다는 원가설을 기각하였지만 사례수가 7,000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적 적합도지수를 산출한 결과  $CFI=.954$ ,  $TLI=.956$ ,  $RMSEA=.043$ 등으로 구조회귀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분석결과 동일한 학업성취수준의 학생이라도 부모가 학업을 우선시하는 교육관을 가질수록 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정도가 높아지고 예체능 및 동아리활동 등의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학업성취수준의 학생이라면 교과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방과후활동은 학교행복과 부(-)적 연관성을 보였고, 공동체의식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었다.

반면,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성취도가 같은 학생이라도 비교과 방과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인지적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우선교육관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학교행복에 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공동체의식에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제시된 직접효과는 교과 및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를 제외한 다른 이유로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비인지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학업성취도는 방과후 참여,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과 모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방과후 학교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자 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참여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학업성취를 통제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도는 교과방과후 참여와 부적 연관성을 가지고, 학교행복과는 정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과방과후학교가 학교밖 사교육과는 달리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충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학교행복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학업성취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교과방과후학습이 학교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부(-)적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학업성취도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교과방과후가 학교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032, p=.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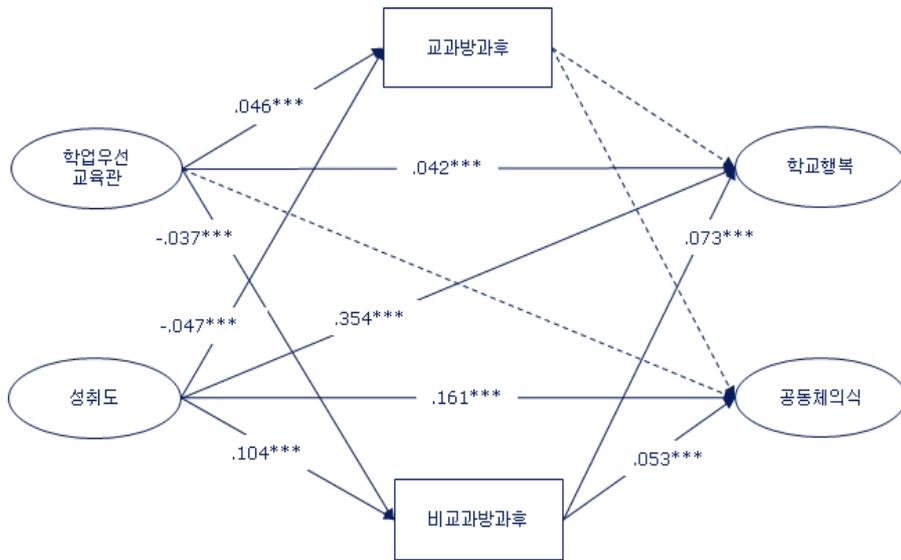


그림 3. 교육관-교내 방과후학교-학교행복 및 공동체의식의 구조모형 (성취도 통제)

표 2

성취도 통제 모형의 모수추정치

요인계수	beta	s.e.	C.R	p-value
학교행복 → 학교행복1	0.844	0.004	193.334	0.000
학교행복 → 학교행복2	0.781	0.005	142.958	0.000
학교행복 → 학교행복3	0.644	0.008	84.704	0.000
학교행복 → 학교행복4	0.790	0.005	149.060	0.000
학교행복 → 학교행복5	0.812	0.005	165.180	0.000
공동체의식 → 공동체의식1	0.694	0.008	91.620	0.000
공동체의식 → 공동체의식2	0.670	0.008	85.270	0.000
공동체의식 → 공동체의식3	0.795	0.006	127.860	0.000
공동체의식 → 공동체의식4	0.745	0.007	109.340	0.000
교육관 → 교육관1	0.617	0.009	70.598	0.000
교육관 → 교육관2	0.714	0.007	96.079	0.000
교육관 → 교육관3	0.767	0.007	115.328	0.000
교육관 → 교육관4	0.726	0.007	99.086	0.000
교육관 → 교육관5	0.664	0.008	81.248	0.000
국어 → 학업성취	0.698	0.008	88.722	0.000
수학 → 학업성취	0.785	0.007	108.509	0.000
영어 → 학업성취	0.798	0.007	112.206	0.000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매개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로계수	<i>beta</i>	<i>s.e.</i>	C.R	<i>p</i> -value
교육관 → 학교행복	0.042	0.013	3.193	0.001
학업성취 → 학교행복	0.354	0.013	28.227	0.000
교과방과후 → 학교행복	-0.012	0.012	-0.969	0.333
비교과방과후 → 학교행복	0.073	0.012	6.104	0.000
교육관 → 공동체의식	-0.001	0.014	-0.077	0.939
학업성취 → 공동체의식	0.161	0.014	11.263	0.000
교과방과후 → 공동체의식	-0.001	0.013	-0.108	0.914
비교과방과후 → 공동체의식	0.053	0.013	4.074	0.000
교육관 → 교과방과후	0.046	0.013	3.550	0.000
학업성취 → 교과방과후	-0.047	0.013	-3.572	0.000
교육관 → 비교과방과후	-0.037	0.013	-2.851	0.004
학업성취 → 비교과방과후	0.104	0.013	7.957	0.000
corr(학교행복, 공동체의식)	0.635	0.009	67.069	0.000
corr(교육관, 학업성취)	0.066	0.014	4.557	0.000

## V. 결론 및 논의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대하여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과 방과후학교 참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인 학교교육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공식적인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학교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을 투입요인으로 설정하고, 방과후학교 유형을 과정요인, 그리고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을 산출요인으로 구성하여, 이들 요소들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최우선시하는 ‘학업우선교육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013년 실시된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간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인 자녀의 성적이 동일할 경우, 부모가 학업을 우선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과방과후학교에 자녀를 더 많이 참여시킨다. 이는 학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학생들이 방과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업을 중요시하는 학부모일수록 방과후에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이 동일할 경우, 교과방과후학교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활동 외에도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성취수준이라면 부모가 학업을 우선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를 비교과 방과후학교에 더 적게 참여시킨다. 이는 역으로 부모가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취미 등을 우선시하는 교육관을 가질수록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학업을 중요시하는지, 적성이나 자기계발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참여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교과 방과후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삶에서 학교행복이나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비교과 방과후학교가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를 해석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취미나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교과 방과후학교에 자녀를 참여시키며, 이러한 활동이 취미나 적성의 계발 이외에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은 직접적으로 학교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남궁지영과 최보미(2014)의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행복이 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학업을 중요시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이 경우 학생들의 학업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이 학교행복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학업우선교육관은 공동체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취미 등을 우선시하는 교육관을 가질 경우

다양한 비교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공동체의식이나 학교행복이 증진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부모교육관이 취미/적성 대비 학업이라는 양극화된 질문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공동체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이유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 함양에서 성취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교행복이나 공동체 의식 역시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인성과 학교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남궁지영, 최보미, 2014; 박경호, 송승원,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이는 실제 행동 여부를 떠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소위 모범적인 학생이 보다 규범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성취도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시사점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학교행복 및 공동체 의식 등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발달을 돕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비교과 방과후학교는 비록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학교행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개인단위로 이루어지는 음악교습과 같은 사교육 영역에서의 비교과 사교육활동과는 차별화되는 학교내 방과후학교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 사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 수준 높은 학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비교과 영역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긍정적인 비교과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예체능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체능 교육 역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4).

다음으로, 부모가 학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관에서 벗어나, 자녀가 다양한 특기 적성을 계발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교과적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변화는 보다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행복감과 인성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취에 대한 또래 및 사

회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과 더불어 학교차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학부모의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교육관이 학업위주의 교육관과 적성위주의 교육관으로 구분되지만 비슷한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 간에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학업위주의 교육관을 가진 부모 중에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따라서 학업위주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들을 대상으로 추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적, 비인지적 교육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교육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에 따른 교육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대도시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이 학업위주의 교육관을 가지는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의 정서에 부모의 교육관이 주요 요인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의 형성과정에 대한 정교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특기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자녀의 특기·적성 위주 교육활동을 중단시키고 학업 위주의 교육활동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비인지적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성격이 차별화되며, 이는 학생들의 비인지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행복과 공동체의식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학부모는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 활동에 지원을 하는 만큼, 학교행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자녀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이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0(1), 21-40.
- 김상봉 (2004). **학벌사회**. 서울: 한길사.
- 김신경, 박민경, 안지선 (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신태수 (2010).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좋은 학교특성: 어떤 학교가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가**(연구자료 CRM 2010-9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임현정, 남궁지영, 박희진, 신혜숙, 김성식 외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I): 조사개요보고서**(기술보고 TR 2013-8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박경호, 임현정 (2014). **한국교육종단연구2013(I): 초등학생의 교육경험과 교육성취**(연구보고 RR 2014-2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옥주 (2012). 초보어머니의 자녀교육관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영유아보육학**, 73, 333-356.
- 김위정 (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201-222.
-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33(1), 49-88.
- 김인숙, 변종임, 조순옥 (2010). 방과후학교 참여의 영향. **열린교육연구**, 18(4), 246-270.
- 김창환, 강은경, 노지윤, 박레아, 황혜정 (2012). **지표로 본 세계 속의 한국교육**(통계자료 SM 2012-0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 김현주, 정영란 (2008). 청소년 지도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회 논문집**, 6(4), 17-29.
- 교육부 (2014).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서울: 교육부.
- 남궁지영, 최보미 (2014). 초등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요인 탐색. **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177-204.
- 동윤정, 전미애, 김영희 (2012). 성취압력과 입시부담감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9(2), 101-119.
- 류성창, 장혜승, 서예원, 강태훈, 정제영 (2012). **역량중심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 탐색 연구**(연구보고 OR 2012-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호, 송승원 (2014). 초등학생의 인성에 대한 영향 요인 탐색. **제8회 한국교육종단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137-176.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4(2), 121-154.
- 박현선 (1998). 부모자녀관계와 공부압력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문제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1), 93-118.
- 박홍선, 박경란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2, 79-101.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송미영, 임해미, 최혁준, 박혜영, 손수경 (2013).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2 결과 보고서**(연구보고 RRE 2013-6-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신체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신혜숙 (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의식, 학교행복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신혜숙, 김민조 (2012). 학력격차에 대한 학교수준 방과후학교 참여율의 효과 분석: 초등 교과방과후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5(3), 435-458.
- 염유식, 김영미, 이진아 (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혜진, 주경란 (2004). 유치원아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에 대한 세대간 비교연구. **아동교육**, 13(2), 165-183.
- 윤선진 (2010). 학부모 이해: 소비자권력이 된 학부모. **교육학논총**, 31(1), 19-43.
- 이소희, 노경선, 김창기, 고복자 (2000). 등교 거부 청소년의 환경 및 심리상태. **신경정신의학**, 39(6), 1036-1044.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자형 (201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과후학교의 의미: B시 등대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4(2), 129-161.
- 이정희 (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1994). **어머니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와 자녀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지역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진, 김현신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12-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은림, 도승이, 이운선 (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서울: 교육부
- 최혜영 (2001). 학교생활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역할. **윤리연구**, 48(1), 85-101.
- 하여진, 박현정 (2015). 인과매개모형을 활용한 영어 사교육 참여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 분석: 서울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평가연구**, 28(1), 77-95.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과 시민형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홍영주, 이지연 (2012).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1(2), 325-342.
- Fletcher, G., Simpson, J., & Thomas, G. (2000). Ideals, perceptions, and evaluations in early relationship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933-940.
- Imai, K., Keele, L., & Tingley, D. (2010). Identification, inference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causal mediation effects. *Statistical Science*, 25(1), 51-71.
- Kim, U., & Park, Y. S. (2000). Confucianism and family values: Their impact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Korea. *Zeitschrift für Erziehungswissenschaft*, 3(2), 229-249.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Working Paper No. 2006-03).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centered view of educatio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chool happiness and the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fter-school participation\*

Shin, Hyesook\*\* · Kim, Junyeop\*\*\* · Min, Byeongcheol\*\*\*\* · Oh, Youmi\*\*\*\*\*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 on how parents' academic-centered view of education(ACVE), i.e., placing priority upon child education on studying academic subjects rather than leisure pursuits, hobbies or social relations, affects the children's 'participation within academic and non-academic afterschool programs and how this participation affects their children's non-academic achievements such as levels of school happiness and sense of community. For this purpose, we applied path analyses using the first wave data from KEDI's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KELS) 2013.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s' ACVE leads their children to participate in more academic and fewer non-academic after-school programs. The effect of academic activities on the non-cognitive achievements was not significant. However, non-academic activities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non-cognitive achievements of all domains investigated. Second, parents ACVE had a direct positive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ion and self management. It is not a simple matter to explain this positive effect. This direct effect can be viewed as a composite of all the indirect effects via many mediators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study.

Key Words: parents' academic-centered view of education, non-academic afterschool activity, school happiness, sense of community

투고일: 2015. 6. 15, 심사일: 2015. 8. 4, 심사완료일: 2015. 8. 10

---

\* This article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ongik university, 2013 and revised with a big help of comments at the 8th kels symposium.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Hongi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unyeop@gmail.com

\*\*\*\*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ngik University